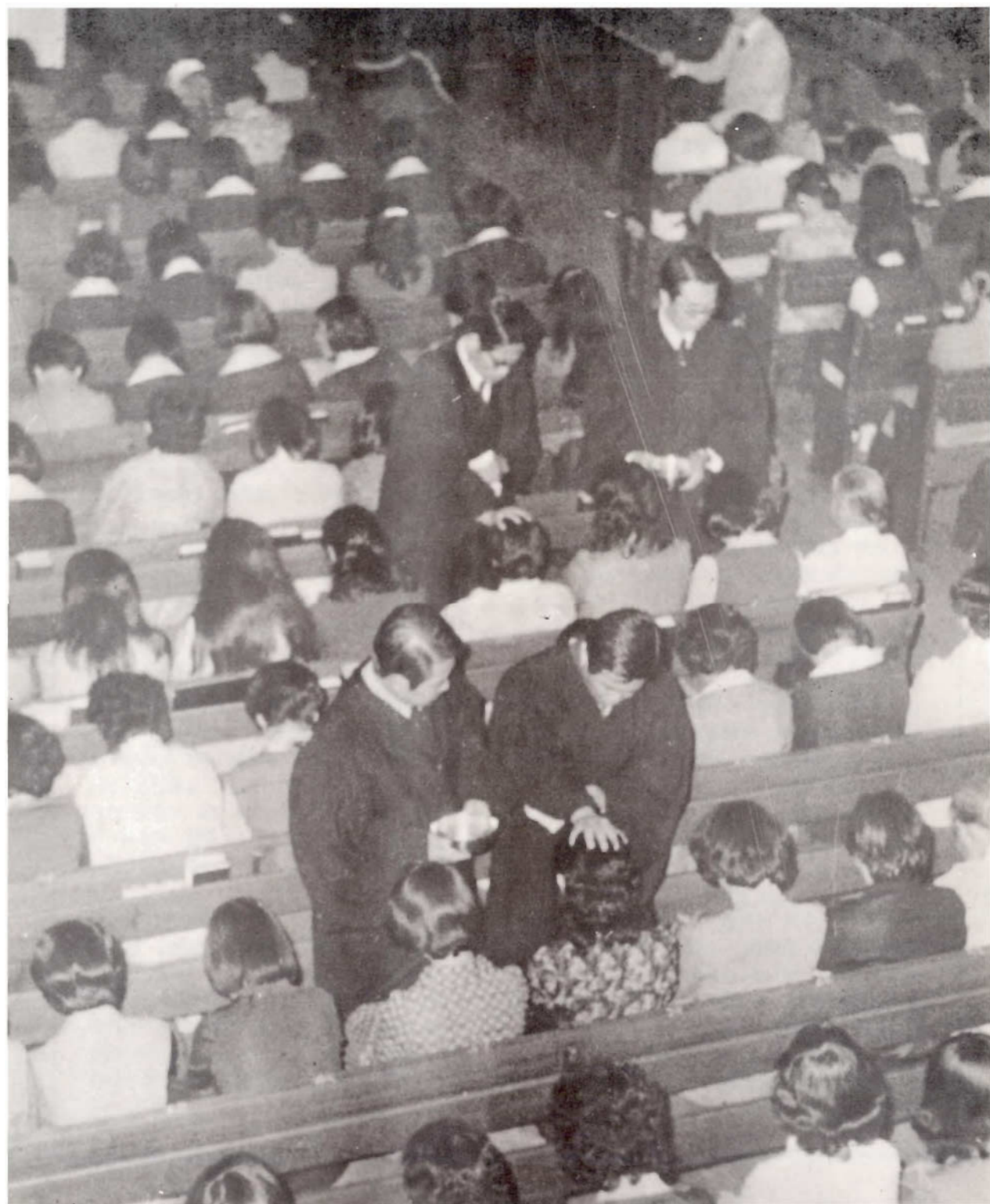


월간 증 현

'80 10월호



교회와 선교

오늘날 교회의 기능을 「선교」라는 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교회에 주신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세례를 주고.....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 19, 20)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사도들이 표현은 각기 달리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지상대 위임령을 굽히 기록하고 있다. (마28: 19, 20; 막 16: 15; 행 1: 8; 요17: 18; 20: 21) 이 예수님의 지상위임령은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촉구하는 일과 말씀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선교의 원천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선교는 본래 원천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와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셨다.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루터기를 보존하셨다. 그 후 모세를 애굽땅으로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사(렘7: 25)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성전을 재건케 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 후에 드디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갈 4: 4) 그리고 성부와 성재께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자기 아들과 성령을 보내신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며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 21)고 하신 말씀은 선교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더욱 돌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개 교회의 정책적인 문제일 수가 없고, 더더구나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교회의 연합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없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선타인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선교이며, 선교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것을 행동화 할 뿐이다.

선교의 외적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됨과 동시에 선교의 내적 원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롬 1: 16) 성도들의 자발적이고도 팔연적인 신앙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복음에 「빛진 자」(롬 1: 14)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롬 1: 17)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롬 1: 16)을 체험한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팔연적인 생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할 자가 모인 교회는 이유와 핑계가 없이 자발적으로 선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선교의 원천과 교회의 선교의 동기를 이상의 2가지 면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성경적인 선상에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쯤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혹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이 개 교회의 영적 장식품으로 유행되고 있을까 보아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대(※)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9호

통권81호

— 10월호 차례 —

월간충현



권 두 언	교회와 선교	주 간	2
이달의말씀	하나님의 심판	김장인	4
만 난 사 람	파라과이 선교사 김재창목사	편집부	6
파 라 과 이	어떤곳인가?	편집부	9
특 별 게 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번역 / 오태용	10
전도위원회	전도위원장을 맡으며	김중석	16
편집실칼럼	교육과 훈련	이형수	18
찬송가감상	내 주의 보혈은(새282)	김하진	18
도 서 정 보	8월중 들어온 도서	도서실	19
책 소 개	주님향해 뛰어라	인정옥	19
기독교윤리	기독교와 문화	김하진	20
교회성례식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김재창	23
주간의만나	시편 68편	김장인	24
독 자 의 글	우리의 할 일	한정미	25
선 교 월 보	9월중 선교지 소식·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26
구 역 소 식	8월중 새교우·결혼·별세 명단	편집부	28
권 찰 수 첩	가정심방에 대한 재인식(1)	김원남	29
교 계 뉴 스	월간교계 뉴우스	편집부	30
교 회 소 식		편집부	31
답 한 다	궁극적 구원이란?	장정일	35
10 월 행 사		편집부	34
편 집 후 기		편집부	34

표지설명 /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일년에 봄·가을에 성례식을 갖는다. 금년 가을에는 10월 9 - 12일까지 성례식을 행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살후 1:3~12〉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만사는 지극히 적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판을 생각해 볼 때 그 재판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증거가 없는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남기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상받을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1. 심판때에 상 받을 증거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상 받을 사람입니다.

또 자란다는 말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라면 과실을 맺고 사람은 인격이 자라며 인격적인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1)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숨을 쉬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숨을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지 기

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빨리 이겨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2)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숨을 잘 쉬어도 먹을 것을 못 먹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어린 아기는 발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성경말씀입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내년부터 성경학원을 통해 일 년 내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총현교회는 제적이고 평신도전 간에 매일 매일 계속하여 성경을 보며 성경을 먹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죽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지나간 날의 잘못이 생각납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와 꼭 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심판을 하되 모든 죄와 허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싹싹 지워버립니다.

4)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을 향하되 남이 보니까 체면상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선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행할 때 믿음은 더욱 더 쑥쑥 자라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 주렁 맺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세가지 이유로 복음에 순종치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그건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만물속에서도 나타나 보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보아 하나님과 뜻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을 알기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불효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바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망설이고 바치지 못하고, 알기는 알지만 땅을 흘린 수고가 싫어서, 알기는 알지만 죄를 짓는 재미를 버릴 수가 없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하에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선하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합니다.

옳은 말인줄 알면서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1) 살아서 받는 심판

내가 세상에 살아 있는 때는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미리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상 받을 것만 남겨둡시다.

2) 세상 떠날 때 받는 심판

인생은 그 누구도 세상을 떠날 시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날 장소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제인가는 세상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적같이 죽음이 예고없이 임할 때 살아 생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힘도 못 쓰고 오늘 내일 미루다가 죽음이 문밖에서 노크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시에 죽음이 들어 닥

치기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같은 심판의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며,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지식을 악용하며,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나며,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 밝게 켜 기쁨으로 맞으려 나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나아가 내 시간, 내 생명, 내 재산 모두 힘써 바쳐 선한 일에 투자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업적을 쌓으면 영육이 하나님께로 부터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생활을 누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벌벌 떨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방송설교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66KHz

매주일 저녁 7시15분부터

파라과이 선교사 / 김재창 목사



어려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만 100여 년간 우리 교회에서 중성스럽게 수고하여 오신 김재창목사가 지난 10월.....○
○.....3 일 선교사의 중한 임무를 띠고 남미의 파라과이로 떠났다. 떠나기에 앞서 월.....○
○.....간중헌 편집실에서 잠시 만나 그동안의 경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그동안의 일.....○
○.....들을 알아 보며 온 교우들에게 소개한다.○

우리 교회에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의 실천을 위해 해외복음선교회를 발족한 것이 1968년, 이제 13년째를 넘기며 우리는 그동안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박성룡목사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파송된 후 금년에는 남미의 파라과이로 김재창목사를 파송해 남미에 더욱 든든한 선교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에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신다고 발표가 된 후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미의 파라과이는 실제로 수속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이야기는 했으면서도 수속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수속이 5개월 걸렸고 또 이쪽에서도 무척 어려워해서 관계하는 남미이주공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던 일이 그래도 이제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쪽 교회 교인들은 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된 출로 생각합니다.

파라과이의 가시는 교회의 형편이나 여건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가야하는 교회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한인교회로 교회명은 「아순시온 교회」입니다. 교인수는 150명 정도 되는데 제직수는 장로님이 한분, 권사님이 네분, 제직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 형편 중에 곤란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 가신 백목사님은 오랜 기간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셨는데 지금 제가 가야하는 아순시온교회에는 담임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하기 위해 이민 수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면 목사가 둘이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현재 계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그 교회를 키우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김창인목사님이 여행중에 만나 김창인 목사님께 후임자를 부탁하게 되어 일을 시작했는데 정작 일이 되고 보니까 그쪽의 목사님으로



〈파라과이 선교사 김재창목사의 선교사 파송예배〉

서도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
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비관적으
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순리대로, 하
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제 생
각으로는 그 목사님이 계시도 좋고 또 비켜 주
시면 독립적으로 해도 좋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신다면 원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목사의
위치에서 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인들에게 손상을 안 끼치고 그 목사님께
상처를 안 주는 일이지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미국가시고 나면 김목사
님께서 전담하시게 될텐데 파송예배 때에도 말씀
하셨지만 거기 가서서 앞으로 목회 및 선교활동
을 어떻게 하실런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그쪽에 가서 일하는 첫째 목적은 우리 한인교
회를 복음적인 신앙체제 위에 올려 놓는 일입니
다. 둘째는 우리 교포사회의 복음화입니다. 우
리 교포사회가 제가 여기서 듣기는 미국에 나
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살려고 하는 장점
도 있는 반면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교포끼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함으로 그 나라 사
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면을 생각해서도 교포사회를 복음화 시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함으로 현

지인들에게 신임받는 교포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그곳에서 자리가 잡히고 익숙해 지
면 역시 현지인 선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에 지배를 받은 탓으로 국민중 95%가
카톨릭신자라고는 하지만 그렇기에 더 큰 문제
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째로는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의 일익을 담당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이미 북
한선교회에 가입한 회원들도 많이 있고 또한 북
한선교는 오히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협력해
야 하는고로 이 일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떠나시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
면 무엇인지요. ?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임자하고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그곳 교인들은 전임 목사님은 원
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로 교회를 담임토록 하
겠다고 하지만...순리대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이 10월
11~13일까지 아순시온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인목사님이 오셔서 그 문제도 충분한 협
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소

/ Rev. Jae-Chang Kim
Lomas Valentinas 1460 Casi Peru,
ASUNCION / PARAGUAY



목사님은 우리 교회하고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 교
회에 나오셨는지요?

제가 충현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은 것
이 1954년 10월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지 1년뒤이지요. 그 당
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
지요. 특히 주일학교에 대한 서무, 행정적인 면
에서 열심히 했지요. 또한 교회내 각 기관의
조직정리등을 하나 하나 해 나갔읍니다. 그러다
가 고려신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 가
서 경상도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12년만에 다
시 우리 교회로 와서 부목사로 오늘까지 만 10
년 2개월정도 일했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교육위원장 4년, 심방위
원장 2년, 지도자양성부가 처음 생길 때 지도
를, 또한 장년부 지도를 했고 노년부 지도를 처
음부터 지금까지 6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잠시 성가부 지도를 하기도 했지만 주
로 심방부에서 일을 했읍니다. 중임을 할 때가
좀 어려웠지만 밑에서 각 분야의 책임을 맡아 보
시는 분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무난히 감당을
했읍니다.

그 동안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특별히 생각나
시는 일이나 잊지 못할 일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우선 당회장목사님을 잘 보필했어야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목사님 개인 앞에 죄송하고 교회에 보다 더 유
익이 되고 덕이 되었어야 했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니
다.

그동안 지내면서 특히 정이 들은 것은 노년부
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노년부가 매우 귀
한 보배입니다. 노인들이 믿음이 진실해서 이 교
회를 위하여, 교역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
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교인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최근에 크고 많은 일들을 벌려 놓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새로운 사명을 띄고 나가게
되어서 감사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게도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니까 당회장 목사님
을 중심해서 당면한 크고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
로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
고 또한 장로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기에 우리
교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잘 이
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읍니다.

그 다음으로 제직원들과 교인들이 낮도 익고 천
숙해진 교역자들이 갑자기 많이 이동됨으로 행
여 신앙에 손상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피차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 오신 교역자들을 잘
익히고 하며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교회가 되
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은 여려
분의 적극적인 기도의 도움과 두고 가는 어린 두
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담·정리 / 이 형 수 집사

(월간충현 편집부장)

□ 열 한 번째 선교지 - 파라과이 □

카톨릭을 국교로

남미에서 가장 어려운 곳

우리 교민 1700가구 6,500여명

지난 9월 3일 우리 교회가 열 한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00여년간 봉사하신 김재창 목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 선교지는 남미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라과이」. 이 난에서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선교지 「파라과이」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편집자>



원 명	: Republica del Paraguay
면 적	: 406,752km ²
인 구	: 2,580,000명 (1972)
인구밀도	: 6 (명 / km ²)
수 도	: 아순시온 (Asuncion)
언 어	: 스페인어 (공용), 구아라니어
종 교	: 카톨릭
통 화	: 구아라니 (Guarani)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에 둘러 싸인 내륙국이다. 국토는 우리나라(남한)의 약 4배 가량되나 인구는 불과 250만 정도로 국토의 중앙부를, 파라과이 강이 흐르고 그 동부는 삼림이 많은 구릉지고 서부는 건조한 대평원으로 되어 있다.

1. 파라과이의 역사

원주민은 구아라니 (Guarani) 족으로 16세기 이후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다가 1811년 독립을 했다. 그러나 1864~1870년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 파라과이 전쟁과 1932~1935년의 차코 (Chaco) 전쟁에서의 패전으로 국토는 황폐하여졌고 많은 국민을 잃었다.

이후 정정(政情)불안이 꼬리를 이어 군(軍)을 배경으로 한 정권이 계속되고 있다. 1844년 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 1954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차베스대통령이 축출되고 스트피스너장군이 1958년 이래 대통령에 있다.

2. 파라과이의 산업과 경제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농민이다. 목축업은 육우(肉牛)를 주로한다. <화폐> 구아라니 (1달러 = 125G, 79년), 1인당 국민소득은 575달러 (78년)이다.

3. 파라과이의 종교

스페인 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이 국교로 정해 있다. 카톨릭신자는 95%에 달한다.

4. 파라과이의 기후

무덥고 습기찬 서바나풍의 기후이며 겨울(4~9월)은 건조하며 여름(10~3월)은 비가 매우 많이 내린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최고 기온은 섭씨 40~42도, 최저기온은 섭씨 1도.

5. 파라과이의 사회, 문화

메스티조(스페인계 백인과 원주민의 인더오의 혼혈)가 인구의 95%를 차지하며 공용어는 스페인어와 구아라니어를 사용한다. 국민학교는 의무교육, 문맹율이 20.3%, TV방송국 2국, 라디오방송국 25개국, 중앙지(신문) 4개, TV는 1,000명당 23대 꼴이다.

6. 한국과의 관계

1962년 6월에 수교하여 공관을 설치했고 1976년 3월에는 문화협정, 1975년 7월에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었다. 교민수는 1978년 6월 현재로 1714가구에 6,564명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존 칼빈 지음 오 태 용 옮김

□ 차례 □

제 1 장 겸손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 받는 삶이다.

- I. 성경은 생활의 표준이다.
- II. 성경은 기본되는 원리이다.
- III. 성경을 좇음은 그리스도께의 순종을 뜻한다.
- IV. 표면적 기독교는 충분하지 못하다.
- V. 영적 진보는 필요하다.

제 2 장 자아부정

- I.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 II.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아부정을 의미한다.
- III. 자아부정의 요소는 절제와 의와 경건이다.
- IV. 참된 겸손은 남을 존경하는 것이다.
- V. 우리는 다른 신자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 VI.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상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 VII. 공민적인 선행은 충분하지 못하다.

VIII.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

- IX.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열망해서는 안된다.
- X. 주님은 모든 면에 공정하시다.

제 3 장 인내로 십자가를 짊

- I.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아부정보다 더 어렵다.
- II.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 III. 십자가는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한다.
- IV. 십자가는 순종을 가르친다.
- V. 십자가는 훈련에 도움이 된다.
- VI. 십자가는 회개를 가져온다.
- VII. 킵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
- VIII. 킵박은 영적 기쁨을 가져와야 한다.
- IX. 십자가가 우리를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된다.
- X. 십자가는 복종에 도움이 된다.
- XI.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

제 4 장 내세의 소망

- I.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 II. 우리는 현세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 III. 현세의 축복을 경멸해서는 안된다.
- IV. 하늘과 비교할 때 땅은 무엇인지.
- V.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
- VI.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 마라나싸 (Maranatha) : 주님이 오신다.

제 5 장 현세의 올바른 사용

- I. 극단을 피하자.
- II. 세상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III. 진정한 감사는 남용을 억제하게 해 줄 것이다.
- IV. 절제하며 살자.
- V. 궁핍한 중에도 인내하고 만족하자.
- VI. 신의 소명에 충실하라.

내세의 소망

I.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1.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해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가 있으니, 곧 장래의 생활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의 [헛된 것들을] 경멸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가 무분별하게 심지어는 육욕적으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쉽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되부르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시기 위해 뛰어난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성향에 지나친 애착심을 갖지 않게 된다.

2. 우리들 중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원 불멸을 얻으려고 힘써 노력하고 그것에 이르기를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제 조건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없을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야심에 찬 계획, 사업 및 행동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것은 모두 이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부와 권력과 명예의 외적 광채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건너편을 볼 수 없게 된 우리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탐욕과 야심과 다른 악한 소원들로 가득차서 시달림을 받는 마음 역시 그 이상을 올라설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육적 즐거움에 감싸여 있는 모든 영혼은 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3. 이를 제지시키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격심한 불행의 교훈들을 가지고 현재 생활의 헛되고 무익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스스로에게 기약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서는 전쟁이나 혁명, 강도, 기타 다른 손해를 통해서 그들이 자주 혼란과 피로움을 당하게 하신다.

그들이 덧없이 지나가는 불확실한 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자기의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서는 때로는 추방으로, 때로는 땅의 흉작으로, 때로는 화재로, 때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가난

에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평범한 상태로 제한시켜 버린다.

그들이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만족해지거나 즐거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서는 어느 한쪽을 데려가심으로써 피로움을 당하게 하시며, 또한 강박한 자손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가 없거나 잃어버리는 시련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나 만일 이상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는 질병과 위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축복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덧없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 결과로 그들은 헛된 영광으로 자만하지 않게 된다.

4. 그러므로 이 세상 생활은 그것만을 생각하면 불안과 고생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정말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또 소위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모두는 불확실하고 덧없고 헛되며, 끝없는 불행으로 뒤범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계율에서만 참된 유익을 얻게 된다

이의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싸움 이외엔 아무 것도 없으며, 면류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즉시 이르게 된다.

하지만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먼저 현재의 헛된 것들을 버리는 일을 철저히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지하게 장래 생활을 바라거나 묵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II. 우리는 이 현세를 과대평가 하기가 쉽다

1. 이 세상 생활을 낮게 평가해야 하느냐, 아니면 과도하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이 양 극단 간에 중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고로 우리가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한편 현세에는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즐겁게 해 줄 쾌락과 아름다움과 달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거기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항상 현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여러가지 악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도 그 것으로 현세의 불행을 충분히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가 없다.

2. 인간 생활은 안개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만 일반 사람들도 그런 취지의 금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아주 유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과 그 무상함에 대한 인상 깊은 표현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소홀히 생각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기억에서 더 빨리 떨어 버리는 것이라곤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양 모든 일에 힘쓰기 때문이다.

혹 장례 행렬을 지켜 본다거나 무덤 사이를 걸어가면서 죽음의 영상을 눈앞에서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 무상에 대해 철학적 사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철학이 일시적일 때는 우리가 나가자마자 곧 그것이 떨어져 가서 최소한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오락 프로에서 박수갈채 모양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

3. 우리는 죽음을 망각할 뿐 아니라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도 잊고 있다. 마치 그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들어본 일이 없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어리석은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만일 어쩌다가 누가 사람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금언을 상기시켜 주면 이 진리를 기꺼이 인정하는데 그러다가도 조금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써 혼계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모든 증거를 볼 때 현세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설령 이를 확신하게 된 후라 할지라도 마치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축복의 축적에 불과하기라도 하듯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집부려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중지할 수 있을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확실히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나태하지 않도록 일깨우실 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전심으로 내세를 복상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다.

III. 현세의 축복이 경멸 되어서는 안된다

1. 그렇더라도 현세를 낮게 평가하려는 우리의 부당한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미워하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치 않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불행들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경멸 되어서는 안될 신의 축복 가운데서 판단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적지 않은 배은망덕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신자에게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까닭은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구원을 전보시키기 위해 예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2. 그 이유는 그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별반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서 그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축복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의 인자하심을 가르치는 것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마치도 그 안에 선한 것이라곤 눈썹 만큼도 없는 양 그것을 경멸 해석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될 한량 없으신 신의 사랑 가운데다 분류해 넣을 만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에 수가 많고 분명한 성경적 증거들이 부족할 경우라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그것의 여러 사용법들 및 그것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수단 방법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3. 더구나 이 세상은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먼저 땅 위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로 싸움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의 인자하심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

하게 되는 것이다.

4.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라는 결론에 달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의 불행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줄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앞에서 살펴 온 바와 같이 우리가 생애적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과도한 생의 기쁨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하늘나라와 비교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인지 /

1.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에서 제해 버려야 할 영광이 어떤 것이든간에 우리는 더 좋은 세계를 바랄 수 있다

최대의 축복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교도에게는 정말 맞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참 종교를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 세상살이에서 보는 것이라곤 불행과 비참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친족이 태어날 때는 슬퍼하며 울고 장례식 때는 장엄하게 경축을 했던 스키키타인들(Scythians)의 행동에 무슨 비리(非理)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습은 어떤 점에서도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본래는 복된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해서 경건한 신자들의 유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교도들의 전해는 절망으로 끝났던 것이다.

2.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인간 세상을 평가할 때는 그것은 사실 비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이 그들은 부제련혀 그리고 갈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장차 얻게 될 영광에 관하여 묵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하게 될 때는 현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기까지도 할 수 있다.

*) 불어판에는 가볍게 지나쳐 버리다로 되어 있고, 라틴어판에는 소홀히 하다로 되어 있다.

만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유배지에 불과하고, 이 세상살이는 낯선 나라를 지나가

는 여행에 지나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

만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면 이 세상은 무덤에 불과하지 그 무엇이겠는가?

**) 라틴어판에는 첫번째 주절뿐인데 비해 불어판에는 두번째 주절만 나와 있다.

이 최많은 세상에 사는 것은 죽음 속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해방을 뜻한다면 이 육신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그것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닌가?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까지는 “주님과 따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 생활을 하늘나라 생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경멸을 받고 실패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그렇다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현세를 증오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 증오까지도 생활 그 자체에 적당히 적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또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 생활이 너무도 싫어지고 경멸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종식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싫증을 느낌으로써 초조하고 성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 놓으신 주둔지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 가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도록 육신이 속박되어 있는 자기 운명을 슬퍼하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는지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나 죽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마땅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

4.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생사 문제를 그의 결정과 기쁘신 뜻에 맡겨 드리자

동시에 장차 맞이할 불멸과 비교하여 현세의(헛된 것)을 경멸하는 동안엔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계속 묵상하자.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기꺼이 떠나자. (고린도후서 5 : 6 ; 로마서 7 : 24 ; 빌립보서 1 : 20 ; 로마서 14 : 7, 8.)

V.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

1. 죽음을 열망하는 대신 스스로 신자입네 하고 떠벌이는 사람 중에는 죽음의 공포로 꽉 차 있어서 마치 무슨 큰 변이라도 생길까봐 그 말이 언급될 때마다 벌벌 떠는 이들이 많다니 가공할 일이다

세상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자연스런 감정이 놀라서 오싹한다 해도 그게 우리를 아연하게 하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적인 위로로 진압하기에 충분한 광명과 헌신이 신자의 가슴 속에 없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만일 장차 영속적이고 완전하고 썩지않는 하늘 영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불안정하고 타락하고 썩기 쉽고 연약하고 시들고 부패한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계가 두려워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도록 하지 못할까?

만일 우리가 죽는 것은 추방된 자리에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 오라는 부름을 받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지 않을까?

2.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는 안정된 곳을 얻기 위해 장차 들어 갈 영원 불멸의 곳을 기대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 육신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옷으로 덧입기 위해 죽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것을 신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친다.

짐승들과 심지어 나무 토막과 돌맹이에 이르기까지 생명없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헛된 데서 구원 받기 위해 현재의 헛됨을 깨닫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기다리게 할까? 우리는 천부적인 이성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탁월한 조명을 타고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장래 존재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타락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지 못할까?

3. 그러나 죽음의 공포와 같이 전혀 빗나간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필자의 현재 목적에 필요한 일도 적합한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필자는 일상적인 진부한 문제를 복잡하

게 논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들이 이교도들까지도 죽음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면 얼굴이 뜨거워타니 철학자란 말을 들을 만한 위인이 못된다면 키프리안의「인생론」(Cyprian's treatise on Mortality)을 일독해 보길 권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분 좋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4. 그 이유는 바울이 만든 신자들에게 이 표를 새겨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동기를 가져다 주길 원할 때는 종종 그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황홀한 기쁨과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기 위해 계획한 것들이 슬픔과 대경실색일 뿐 우리에게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

실정이 이렇다면 왜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서 여전히 기뻐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보다 더 진전한 판단력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 육신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욕망이 방해를 하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통쾌한 사건인 우리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하자.

아울러 그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심판의 날)을 열망하고 탄식하기까지도 하자.

*) 불어판에는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음.

왜냐하면 그가 구주로 오셔서 모든 악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이 무저갱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저 복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후 5 : 4 ; 딤후 2 : 13 ; 눅 21 : 28)

VI.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 마라나싸 (Maranatha)

1. 모든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더욱 더 멀리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천국을 향해 생각을 높이고, 덧없이 지나가는 허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지평선 너머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상태는 비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2. 불경건한 자들은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소위 말하는 마음의 평화를 구가하라

자기의 웅장함과 호화로움을 자랑하고 모든 기쁨

을 풍성히 누리이라.

빛의 자녀들을 그들의 사악으로 괴롭히고, 그들의 교만으로 모욕을 주고, 그들의 탐욕으로 강탈하고, 그들의 전적인 불법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라.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꼴을 당하거든 눈을 들어 올려보라. 그리하면 그러한 재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그의 평화의 나라로 영접해 들일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희락의 옷을 입히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무한한 즐거움으로 위안을 주시며 그의 영광으로 들어 올리셔서 그가 누리시는 행복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3.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살았던 악행자들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던지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즐거움을 고통으로 그들의 웃음과 환락을 눈물로 바꾸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양심의 고통으로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간음한 자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고 충성스러운 사들에게 복종토록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내를 악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4.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다. 만일 이것을 못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헛된 쾌락으로 자위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까지도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곱곰 생각하게 될 때 어쩔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최후를 확인할 때까지는 침착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의 마음 속에서 마귀와 육신, 죄와 사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눈을 들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뿐이다. <롬 8 : 36; 고전 15 : 19; 사 25 : 8; 계 7 : 17; 살후 1 : 6, 7; 시 73 : 2 이하>

<다음호에 계속>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충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음과 힘을 합하였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영혼을 얻자

김 중 석 목사 (전도위원장)

할렐루야! 충현교회 교우 여러분과 충현지를 받아 보시는 국내 및 해외의 여러분께 신임 전도위원장으로 인사를 드리며 전도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위원회의 일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도는 강조됩니다.

민족복음화를 한국의 참된 사활(死活)의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한국의 전 교인은(해외 동포도 포함하여)총동원 제제로 들어가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국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는 시점(時點)에 서 있기 때문에 전도는 강조됩니다.

초창기부터 선교사 파송에 눈을 뗀던 한국 교회는 이제 바야흐로 세계 선교역사에 있어 기록될 만한 중요한 선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안은 본 전도위원회는 이 사명을 감당기 위한 방도로써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화 해나갈 것입니다.

	단 기 계 획	장 기 계 획
1. 기획분과	전도위원회 업무 체계화, 업무조정	조사, 평가, 전력 개발
2. 내지분과	개척교회를 지역(地域)거점화, 기도처 형성	농어촌 현지 지도자 훈련, 양성
3. 외지분과	현지 설명을 명확히 파악 긴밀한 업무 협조 선교지원 활동	현지인 선교·정책 확립
4. 특수분과	산업, 군, 병원, 교도소, 학원전도를 조직화하여 지원	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법의 다양화
5. 총동원 분과	훈련된 전도인 양성, 전도사례발표, 전도열 고취, 전도 학교	전도 지향형(指向型)교회

1. 기획분과

전도위원회란 군(軍)에 있어서 야전군(野戰軍) 사령부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야전군을 야전군 담게 강화하는 일이 기획분과의 일로서 제반 업무가 명확을 기하도록 신속하고 질서있게 되도록 변화있는 전선에 기동력있게 신속성있게 대처 하도록 하는 일이 우선 해야할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뒤질 것입니다. 시대에 뒤지지 않는 전도, 새로운 형태의 전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2. 내지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충현의 일터를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확대합니다. 현재 남한에 작은 마을, 즉 인구 100명 미만 또는 200명 미만으로 도저히 자립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소단위 마을이 전국에 60,000개소 내지 100,000개소(어떤 학자의 발표)가 있고 이 부락들에 약 1,500만명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일일이 담임 교역자를 파송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복음화하지 않고서는 민족 복음화는 없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은 이런 소부락 여러개를 하나의 교회로 묶고 한 담임 교역자를 두어 지도케 하며 각 소부락에는 기도처 형식의 지교회(지교회)를 이루어 평신도 지도자(장로-과거에는 영수-, 안수집사, 집사)를 세워 담임 교역자 부재시 교회를 인도케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한 교역자가 한 소부락에 가서 정착하여 근거지로 삼고 인근 부락을 다니며 전도하여 작은 교회를 형성하고 계속 왕래하며 돌아보는 형식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여러 해를 지나도 자립을 못하며 앞으로도 자립이 요원한 지역이 있는데 이는 워낙 전도대상 부락이 작은데 근본 원인이 있는 데다가 자연히 교역자 자신도 목회 의욕이 떨어진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 교역자는 파송된 작은 부락만을 대상 삼지 말고 아울

러 인군을 두루 다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켜 돌볼때 힘도 나고 결국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척교회는 그 지역 거점화하고 인근에 기도처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교회 현지 지도자 훈련 및 양성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고있는 농어촌 교역자 초청 및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평시에도 문서를 통한 지원, 교육 교재를 통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교역자 유치를 위하여는 그분들의 최대 애로 사항인 자녀 교육문제까지 교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외지분과

해외복음선교회가 십년을 넘고 서만수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로 보낸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스스로 생각해도 한 일이 적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선할 만한 일은 많은 줄 압니다.

우선 현지 사정을 더 소상히 파악하여야 겠고 이에서 타당성 있는 전략과 협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70년대 선교를 해외동포 전도에 대체로 치중되었다면 80년대 선교는 진일보하여 피선교국 현지인 선교에 본격적인 문을 열어야겠다고 봅니다.

현지인 선교를 위하여는 보다 훈련된 선교사가 보다 잘 짜여진 지원 정책 아래서 파송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는 이제 대 현지인 선교시대를 앞에 놓고 선교정책 확립이라는 필수적 이요, 벅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도 한국의 선교정책 확립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4. 특수분과

가장 후발(後發)사업이며 외국에서도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한 전도가 특수전도인줄 압니다. 이 특수전도는 그 대상이 동질성, 동시성, 동소성(同所性)을 가지며 그들이 흠어질 때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전도, 군전도, 병원전도, 교도소전도, 학원전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에 특별히 사명감을 가진 분을 널리 찾아 모시고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특수 전도를 조직화 한다면 효과적이 되겠고 더 좋은 방법도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5. 총동원분과

우리가 아무리 해외선교를 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을 초청훈련 한다면 만약 우리 교인 자신이 전도를 직접 하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한다는 소리가 높이 들려 오기 보다는 우리 자신이 전도하는 것이 복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현재 성인의 경우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의 교우들만이 실제 전도에 임하고 있고 일년에 한 두명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제 전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못되어도 우선 10%, 그리고 20% 이상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총동원분과에서는 전도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 그룹도 할 수 있겠고 필요할 때는 전도 집회도 갖고 전도학교를 열어 훈련된 전도인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닐 줄로 압니다. 전도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뜨거울 마음, 냉철한 머리, 부지런한 발이 하는 것이며 그때 쓰여지는 적은 돈은 빛이날 것입니다.

전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해외복음선교회, 남전도회, 제일, 제이 여전도회, 산업전도회를 전도위원장과 직접 연결하여 긴밀한 연락과 사업협조를 함으로 각 기관의 보다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틈틈이 회장님들이 모이는 지회장 간담회를 가지려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이땅 못 백성위에 확장되기 위하여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되어진 일을 놓고 우리 자신과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요, 아니하면 화가 있겠기에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 일을 하든지간에 다만 주의 일이 되기 위하여 국내외 모든 교우는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육과 훈련

이 형 수

신앙이란 곧 생활이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된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의미는 주님께 새로운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에 크리스찬은 마땅히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크리스찬다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매우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려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동안 주일학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고 결심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과 결심들은 교회밖을 나서면서 너무나도 무력함을 우리는 늘 통감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워 온 것이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소위 머리로만 익혀 왔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이 나타나는 손과 발과 입들에 대한 바른 사용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매년 여름·겨울에 행하는 수양회를 생각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진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시간을 지키고 하는 일은 등한히 한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칠까만 생각하며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가르치면서 수양회의 성패는 강사에게 달려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훌륭한 말씀들이 과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 지도자와 교사들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 훈련의 영역은 다르다.

지식을 얻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지만 이 지식을 우리의 생활속에서 나타내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제 우리는 지식전달만 급급하는데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실제의 생활의 장(場)에서 적용해 보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주일학교와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머리만 덩그러니 커진 피차의 기이한 모습을 보며 해결못할 의문을 계속 던지게 될 것이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왜 그렇지?”라고.

내 주의 보혈은

(새282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끌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이 찬송은 미국의 감리교 루이스·하트소우(Lewis Hartsough)목사가 작사, 작곡한 것이다. 그는 한때 음악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유명한 부흥회용 찬송을 수집하여 출판하였고 자신도 수 많은 찬송시와 곡을 써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찬송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찬송은 부흥집회에서 새신자 초청용으로 사용되는 찬송이다. 미국에서 무디에 의하여 한참 부흥집회가 성행할 때 생기에 의하여 불려짐으로 수없이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던 은혜로운 찬송이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인간의 죄를 깨끗케 할 수 있을까?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흠도 티도없는 그 피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

제 아무리 약하고 추해도 상관할 것 없다. 주께로 가기만 하면 힘을 주시고 내 추한 모습을 깨끗케 하신다. (2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7)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작시된 이 찬송은 언제나 부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음을 느낀다.

“내 주의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 말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주의 보혈”앞에는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이 능력이 우리를 오라 하심은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면 얻게 된다.

이번달에는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학습, 세례를 받는 일과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성례식이 있는 달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많은 결신자들이 “내 주의 보혈”로 역만 죄악을 용서함 받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 평안”을 소유하는 심령들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8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성서대백과 사전: 정인찬편, 기독교출판사, 1980. 954 P, 26cm

2. 주석

- 1) 칼빈주석: 구약V, 11 존칼빈저, 성서교재 간행사, 1980 566 P, 23cm

II. 기증도서

- 1) Heinrich von Kleist의 세계관과 그의 Novell의 특징, 신표근저, 서울대학교대학원, 1980, 95 P, 26cm (신표근집사 기증)
- 2) Robert Alexander Schumann의 (Liederkieis op, 39)에 관한 연구: 남궁은저, 경희대학교대학원, 1980, 54P, 26cm (남궁은집사 기증)
- 3) 역대 한국화폐개관: 한국은행발권부, 1963, 246P, 26cm
- 4) 근로청소년 특수진도 연구: 임부자저, 베로안 크리스찬 신학대학원, 1976, 277P, 26cm
- 5) 사명의 복음 上, 下: 기문사발행, 1965, 185 P, 19cm
- 6) 성경어구사전: 성문학사발행, 1972, 748P, 19cm
- 7) 현대철학의 혁명: 에이저저, 신일철역 박영사, 1959, 153P, 18cm
- 8) 성경요람: 이현달저, 인성문화사, 1970, 81P, 18cm
- 9) 생명의 원천: 채필근저, 성문관, 1956, 271 P, 18cm
- 10) 빛과 소금-신약성경: 박성겸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종교교육부, 1955, 302P, 18cm
- 11) 사상포로: 박성겸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종교교육부, 1960, 283P, 18cm
- 12) R. E. S.: 라보도저, 미국독립장로교 선교회, 1969, 127P, 19cm

닉키 크로즈 지음 방현덕 옮김

주님향해 뛰어라

보이스사, 304페이지 1500원

이 책은 뉴욕 뒷골목 마우 마우 갱단의 두목 닉키 크로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신회를 적은 것이다.

오늘날 가정 환경이 원만치 못해 열등의식에 빠져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 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 가는 어둡고 절망적인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닉키 크로즈라는 인물을 통해 한가닥 실오라기의 빛을 비춰 주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의 책이다.

닉키는 어느 시골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거칠었다. 과거 몇십년 동안 범죄 알콜중독 마약 중독 매춘행위 동성연애 이런 퇴폐적인 행위에서 구원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하루 하루의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질까지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절망되었고 이런 악몽의 세계에서 도저히 헤어 날 길이 없었다. 오직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뿐이었다.

다매색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도 한 부흥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모든 생활을 창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마우 마우 갱단에서 전도했다는 사실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장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는 우리들도 '닉키처럼 사회에서 멀리 철대 조롱받는 젊은이들을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를 이 책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바로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닉키 크로즈같은 현대의 초조한 젊은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물질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

안 정 옥 전도사 (어린이 새신자부부지도)



기독교윤리와 문화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약 2년동안 「기독교 윤리」문제에 관하여 독자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세련되지 못한 글이었으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이번호에 「기독교 윤리와 문화」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처음에 밝힌 바와같이 윤리문제에 관한 것은 일단 끝을 맺으려 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부족했던 점과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독자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1.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Culture)라는 말은 문명(Civilization)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것이 원시적이든, 개화된 것이든 간에 모든 민족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형태는 민족적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도덕적 표준이라든가 가정생활의 양식, 경제상태, 법률, 종교, 예술, 교육, 과학, 그리고 철학등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생물학적 삶의 사실과 대조되는 것, 즉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관제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문화인(Cultured Person)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정도, 취미의 범위, 미

* 연재순서 *

1. 기독교윤리란 무엇인가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사상
3. 신약의 윤리관
 - 1) 신약의 도덕적 이상
 - 2)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4. 인간과 윤리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1) 사랑의 실천
 - 2) 하나님 나라 형성
8. 생활속의 윤리
 - 1) 가정
 - 2) 결혼
 - 3) 이혼
 - 4) 성(性)
 - 5) 경제
9. 사회속에 윤리의
 - 1) 인구문제
 - 2) 전쟁과 평화
10. 기독교 윤리와 문화

술, 문학, 음악 등 교양 분야에 대한 그의 지식과 감상력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인이란 편협하지 않고 늘 대범한 사회생활을 누리는 자일 것이다. 반면 아접에 빠져 있다면 그는 문화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를 성도라고 하기 이전에 문화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본래 문화(Culture)란 말은 라틴어(Colore)에서 온 말로서 ① 경작한다(agriculture) ② 거주한다 ③ 보호한다 ④ 연구한다 ⑤ 존경한다등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① 어떤 사물이 변형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다.

즉 자연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

으로 자연(Nature)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문화란 말이다.

② 의식적인 창조를 가한 것이다.

이것은 미술, 음악, 시, 소설, 건축등을 말하는데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마적인 감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③ 어떤 주어진 사물을 잘 가꾸고 다루는 것이다.

즉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적으로 손실될 것을 인공적으로 잘 가꾸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문화재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란 언제나 사회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문화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라 보겠다. 다시 말하면 인간 정신이 그 전체로서의 환경과 대결하여 그 물질적 세계, 다른 사람들, 또는 인

생과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만족한 조화를 이루어 보려는 운동에서 산출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화는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하나님께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인간에게 주셨고 윤곽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문화, 혹은 문화적 집단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 주신 청사진에 의하여 시공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요소가 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가 어떤 형태든지 창조력에 제한을 받을 때 발전이 되지 못한다. 즉 인간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때 문화는 발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활동)를 제한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다. 특히 자연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한다. 문화란 자연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이 자연을 신성시 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연종교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인데 제시종교, 즉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연종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종교를 숭상하는 원시인들은 자연의 힘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것이며 두려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양문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중세 종교개혁이후 창조력에 제한을 가했던 모든 범주에서 탈피하여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연을 성복하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던

(창 1:28) 것이므로 인간에게 마땅히 문화 창조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키는 곳에 문화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 기후적 여건, 가난 등이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문화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하며 활동하는 곳에 발한 발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 낙후된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겠다.

2. 문화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어떤 경우에는 문화에 도전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고무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각 개인의 인격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약자를 위하여 보여준 모든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현한 예수님의 정신에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화가 인간적, 사회적, 정신적이라고 볼 때 그 문화권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더욱 높은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에 접근하여 각 개인의 인격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는 높은 정도의 문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개인의 인격을 인정하는 문화적 사회에는 정치적 조

직에서 민주적이며, 국제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교육에는 인격 본위로 나타나며, 사회 봉사에 광범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기독교 문명의 목표일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바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문화의 안정과 진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참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 도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문화는 그 문화권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여 항상 도전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성도들에 의해서 늘 반복되었던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사회속에 있으므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휩쓸려 후퇴하였을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진실하고 경건한 소수의 크리스찬에 의해서 늘 변혁되었던 것이다. 즉 노예제도의 폐기라든지, 인종차별의 부당성, 전쟁에 대한 도전, 노동제도의 개선 등에서 나타났으며 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악은 인류사회에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지혜와 인내로써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교

훈에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가 문화에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정당한 사회적 태도의 보존과 성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교훈만큼 훌륭한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교훈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문화의 유형

먼저 기독교 문화의 유형에 관하여 니버(Richard Niebuhr) 교수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다섯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①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대립 관계(Tertullians 150-225A. D.)

②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조화 관계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것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나타난 사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견해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다.

③ 문화위에 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문화를 완성하는 분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문화와의 종합으로 문화가 완전하려면 기독교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Thomas Aquinas의 견해)

④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긴장 관계

M. Luther 이것은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해 놓은 것이다. 세상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두 왕국이 있다고 본 것이다.

⑤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Augustine, Calvin의 견해) 이미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

교가 생기기 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 문화속에 파고 들어가 그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 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관계가 항상 향상하는 긴장관계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보다는 조금 높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너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절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항상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와 지식을 습득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개혁주의 사고 방식이라 할 것이다.

4. 기독교 문화의 사명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문화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문화창조를 위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노동은 즐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참으로 힘이 들고 하기 싫은 것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범죄한 이후의 문화는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인간의 문화는 자인에게서부터 파괴가 시작되었고(창3:23-24, 4:13) 평안이 없었던 인간은 성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는 문화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한 후에는 자신을 즐겨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예술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모두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 자신을 즐기는 형태에서 한층 더 발전된 것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문화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몰락하는 비극이 반드시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신약에서도 아레오바고의 문화(행17:16-)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화라 하겠다. 비록 악한 요소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문화활동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적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앞에 영광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롬11:36)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문화속에 들어가 그 문화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문화 인류학에서는 사회생활안에서 습득한 인위적인 것으로서 그 사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대되는 전부라 보고 있으나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개척적이며 자유스럽고 통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같이 문화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봉사라 하겠다. (창1:26-31) 그러므로 문화는 자기 표현이나 이상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생활의 과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으므로 이 명령대로 자연계의 모든 재원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든 소산을 인간과 자연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궁극적인 사명이라 하겠다.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김 재 창 목사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새 언약의 유익한 은혜를 감각적 표로서 표시하여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례(sacramentum)라는 말은 성별하여 헌납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바치는 예식이다.

성례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 예식(창 17: 7-14, 출 12: 21-28)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예식(마 28: 19, 마 26: 26-28)이 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일곱가지 성례(성세, 전신, 고해, 성체, 혼배, 신품, 중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것도 아니며 성경이하의 것도 아니다.

1. 세례

세례는 공인된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의식이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바πτίζω(βαπτίζω)인데 「찍는다, 적신다, 뿌린다, 잠근다」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세례는 물로써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뜻을 가진 예식이다. 세례의 참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 것을 인치며 표하는 것이다. (6: 4-6, 갈 3: 26-27, 골 2: 11-12, 고전 12: 13).

1) 세례의 종류

(1) 물세례 -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마 28: 19)

(2) 성령세례 -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다 (마 1: 8).

2)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마 16: 16, 마 28: 19, 창 17: 14, 롬 10: 10).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의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중심과 신앙고백의 진실성 여부는 하나님께 서만 바로 아실 것이니 집례자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다짐할 것 뿐이다.

3) 세례 받는 자의 유익한 은혜가 무엇인가

- (1)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 (2)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획득 (신분변화)
- (3) 주의 상에 참여하는 영광
- (4)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헌신자의 사명의식
- (5) 영원한 천국 시민의 자격증 확보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

2. 성찬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마 26: 26-29, 막 14: 22-25, 눅 22: 19-, 고전 11-2, 3-25).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지켜야 할 제도이며, 천국에서도 주님과 한자리에서 행할 영원한 제도이다 (마 26: 29). 성찬은,

-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 죽음임을 기념하고
- (2)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받아 누리며
- (3) 약속된 신령한 은혜와 모든 축복을 공급하는 방편이 되고
- (4)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적 교제를 더욱 뜨겁게 하는 깊은 뜻이 있다.

1) 성찬에 대한 심대 주장

- (1) 화체설 - 로마 가톨릭교회
- (2) 공재설 - 루터교회
- (3) 기념설 - 칼빈주의 장로교회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영적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상징하는 표이다.

2) 성찬식의 집례자와 참여자

성찬식은 공인된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다. 집례자는 성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그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즙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세례받은 성년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책벌하에 있는 사람과 분별력이 없는 유아는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은 주님의 고귀하신 살과 피를 감각있게 기념하는 예식인고로 베가치마를 가림이 필요하다.

(1) 감사하는 마음 (2) 회개하는 마음 (3) 결심하는 마음 (4) 새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시편에서 줌는

주간의 만나

시편 68 : 19-23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집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요,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질병, 원수의 꾀박등 억만가지의 모든 집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의 집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까닭없이 해하려하는 악한 자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하나님의 원수가 비록 바산(깊고 험한 산)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 내어 멸망케 하신다.

악인이 의인을 까닭없이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시니 마음놓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실 때에는 피할 곳이 없으며 어떠한 용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앞에서는 꺾꾸러지고 만다.

시편 68 : 24-27

승리의 행렬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형자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형자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증거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었고 사망의 위협을 멸할 뿐 아니라 원수를 여지없이 이기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이 다 구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제를 성소에 모시는 다윗왕의 행사는 곧 하나님의 행사의 일부요, 구원받은 백성의 행진은 곧 하나님의 행진인 것입니다. 이 행진은 곧 승리의 행진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원에서 나온 택함 받은 자들이 대회를 모으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대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족속인 베냐민지파를 위시해서 유다지파, 가장 용맹스러운 스블론지파도 있고 납달리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파가 다 모였읍니다.

시편 68 : 28-35

하나님의 세계통치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때에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각 나라의 세력있는 왕들과 여러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 찾으시며 저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십니다. 저들은 전쟁을 즐기는 자인고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어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력함을 깨닫고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옵니다.

땅위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앞에 나오고 마침내 온 천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할일은

한 정 미

(초등부교사)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낙심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찌라도 우리의 할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앙망하고, 바라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며 무릎꿇어 기도드리는 일 밖에 없는 것이다.

곧 기도야말로 우리의 호흡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까닭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같이 한 호흡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신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일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 145:18, 147:11).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하여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이를 베풀어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다. (시 68:19-20, 고후 5:21)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같이 생각되는 일이 우리들의 생활속에 부딪쳐 온다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때까지 인내함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로인해 우리의 인내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청원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결길로 피하여 간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 깊이 고요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훈계하여 주실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우리의 영혼 깊숙히 가득 가득히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란 오직 그분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 뿐이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만수선교사외 가족3명

1. 내방인사

박종만목사(영안교회서무)가 8월27일 내방하여 벨앨신학교등을 방문함.

2. 오지지역 현황

파송번호	지 역	사역자	결 신 자
1	벤데얀	수교요	38명 수세
2	골 로	양 민	장년 1명결신
3	틀로고모즈	스와르스	" 26명결신
8	위노사리	살또스	" 1명결신
9	무띠한	엘리오	" 6명결신
10	바잘란	수교요	12명 수세
13	뿌 충	요나단	장년 2명결신
15	수디모로	수교요	6명 수세
18	술버레조	뿌리바디	장년 3명결신
19	우 녕	양 민	" 1명결신
20	세다유	까르노	장년1명, 아동2명결신

* 기도제목 *

1. 부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2. 서선교사 내외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홍콩 - 홍 종민선교사외 가족 6명

1. 홍콩한인교회 성도들과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여러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콩생활 안내서」를 발간 하였음.

2. 10월 중순경 동양선교회 주최로 열리는 선교회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미국 나성에 방문할 예정임.

3. 인도네시아에 선교헌금 송금.

4. 마카오교회 보조비 전달.

5. 아시아 선교회에 선교헌금 전달.

* 기도제목 *

1. 홍콩지역 선교를 위하여
2. 홍복사님의 가족을 위하여
3. 중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성도들을 위하여

애굽 - 이준교, 김신숙선교사외 가족 6명

1. 7월31일 감독총목사 방문하여 8월3일에는 헬리아폴리스교회와 카이로 한인연합교회에서 설교함.

2. 8월5일~8일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제부동교회 황경찬목사가 방문.

3. 8월6일~13일 감독총목사와 김신숙선교사 가족일행이 성지 이스라엘 여행을 마침.

4. 8월30일 성경통신 8월호 배부함.

5. 8월13일 대림산업 카이로지사를 방문함.

6. 8월15일 카이로 총영사관 주최 광복 35주년 기념식 참석.

7. 8월20일 현지인 사무엘 타와드로스목사(산호르 농촌교회 서무)의 내방을 받고, 애굽선교 및 농촌교회의 현황에 관해 의논함.

8. 8월24일 기자 복음주의교회(압달라목사 서무) 방문하여 주일설교를 함.

9. 8월31일 카스르 엘 도바라 복음주의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예식 집례를 함께 도움.

10. 8월16일자로 이선교사 주소로 우편 사서함을 설치함.

Maadi P.O. BOX 334 Cairo, Egypt.

* 기도제목 *

1. 애굽선교의 앞날을 위하여.
2. 두 선교사와 가족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3.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독 - 육 호기선교사외 가족 3명

1. 8월 4일 - 9일 유럽복음화대회

유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나를 던져라"(요나 1:12)라는 주제 하에 147명이 참석, 특히 한국에서 오신 40여명의 목사와 장로, 유럽 각곳에 세워진 15개 한인교회(교역자 18명)가 협조하였음.

2. 8월10일 주일에는 김우영목사가 말씀을 증거함.

3. 8월17일 주일에는 동양의료선교단 단장인 전재

동목사가 말씀을 증거함.

4. 8월31일 주일에는 김득룡목사가 말씀을 증거함.

*** 기도제목 ***

1. 육선교사의 가족을 위하여
2. 자체 교회 건물을 갖도록

호주 - 김태현선교사와 가족 4명

1. 선원선교 활동

8월4일, 8일, 11일, 20일, 28일(5회) 성공회 선원선교회와 같이 선원선교 활동에 참여함. 한국선원은 물론 외국 선원들에게도 전도함.

2. 매주일 어린이들에게 한글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

3. 선교사 주소 변경

337 Warrigal Road Burwood 3125 Vic.

*** 기도제목 ***

1. 8월로 비자만기되어 체류연장을 위해 신청중 있음. 이를 위해 기도요망.
2. 선교의 전진기지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 백 성룡선교사와 가족 4명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백목사님의 가족을 위하여
2. 남미선교를 위하여

일본 - 유병세평신도선교사와 가족 4명

1. 7월25일 - 8월22일 하기휴가를 마치고 23일 귀임.

2. 8월24일 주일예배 사회와 한국에서의 휴가중 80' 세계복음화 대회를 보고함.

3. 9월부터 새벽기도회 다시 시작함.

*** 기도제목 ***

1. 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2. 선교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서독 - 박용삼평신도선교사와 가족 2명



(김재창선교사의 파송예배가 9월3일 드러졌다)

공한미착

*** 기도제작 ***

1. 박선교사에게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인도 - 엘리아 겔간선교사

1. 8월12일~17일 선교대회차 콜롬보에 다녀옴.

2. 부산고신교수 하도래선교사와 함께 Suru 끝까지 방문함.

3. Kerala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위해 1개월 다녀옴 예정.

*** 기도제목 ***

1. K.E.F 선교사 부인들의 건강을 위해
2. 겔간선교사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3. 사약성경 번역을 위하여

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 기도제목 ***

1. 10월3일 출국예정인 파라과이주재 선교사 김재창목사를 위하여

2. 철레에 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3. 당회장 목사님 선교여행(9월16일~11월25일 북미, 캐나다, 남미, 영국 등 집회)을 위하여

4. 선교사의 집(Missionary Home) 건립계획 위해

8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정 능 구 역	서동진	성북구 정능 2동 521번지
청량 ①구역	조기선	동대문구 전농동 620-55
연 건 구 역	김순조	종로구 연지동 212번지 6/5
창 동 구 역	김연숙	도봉구 쌍문동 85-14, 18/4
돈 암 구 역	백연성	성북구 돈암동1가 52번지 1/4
성 북 구 역	공정자	성북구 성북동2가 58-18
미아 ①구역	홍순식	도봉구 미아4동 3-535, 1/3
휘 경 구 역	오정희	동대문구 휘경동 343-14, 3/1
동소문구역	임선미	성북구 돈암동 527-84 20/8
삼 선 구 역	김덕주	성북구 삼선동1가 11-11 7/7
창 동 구 역	이계옥	도봉구 신장동 536-14 2/4

● 2지구

홍인 ②구역	정화숙	중구 황학동 2277번지 삼일APT, 21동 413호 18/3
석 관 구 역	박원실	성북구 석관동 133-36 38/3
장 안 구 역	이태성	동대문구 장안APT, 77동 402호
쌍림 ③구역	박윤정	중구 쌍림동2가 147
홍인 ②구역	정영탁	중구 신당1동 217, 가96-506 3/3
구의 ②구역	교영순	성동구 구의동 239-18 22/5
답십리구역	이윤영	동대문구 답십리4동 1-330, 25/4
쌍림 ④구역	박장순	중구 쌍림동 151-59, 2/3
마 장 구 역	권명구	성동구 행당1동 3-30, 25/6
길 동 구 역	신혜승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하신곡 353
문 화 구 역	이현숙	중구 신당동 285-75
마 장 구 역	신환영	성동구 사근동 4-30 17/7
길 동 구 역	김삼례	경기도 광주 초월면 용수리 298
길 동 구 역	김금순	경기도 광주시 초월 용수리 298
길 동 구 역	서철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 용수리 298
길 동 구 역	김옥순	경기 광주시 초월 용수리 298
풍 남 구 역	김장순	강동구 풍남동 229-17 28/2
전 호 구 역	김창관	강동구 전호1동 214-19 24/4
중화 ②구역	이외경	동대문구 면목1동 118-34 18/2
쌍림 ④구역	박금화	중구 쌍림동 151-96

● 3지구

이태원 구역	박호용	용산구 이태원2동 385-1 4/2
강남 ②구역	장정일	강남구 서초동 무지개APT, 8동 303호
청 구 구 역	최종환	중구 신당동 321-8 10/4
자양 ①구역	신을순	성동구 자양2동 441-2 15/11 장미연립주택 602호
잠실 ①구역	안동기	강동구 잠실1동 주공APT, 1-67-106
장 미 구 역	최영집	강동구 장미6동 장미APT, 6동 402호
옥 수 구 역	김대경	성동구 옥수2동 207-1 16/9 옥수연립주택 3동 101호
강남 ③구역	윤철규	강남구 서초동 909 20/2
강남 ①구역	홍인성	강남구 염곡동 212-15
잠실 ①구역	류청수	강동구 잠실1단지 주공APT, 67동 303호
화 양 구 역	김명희	성동구 화양리 35-62
시영 ②구역	박종계	잠실 시영APT, 158동 302호
악수 ①구역	이창균	중구 신당동 432 35/3
잠충 ②구역	김현철	강동구 잠실4동 진주APT, 8동 802호
악수 ①구역	박세선	중구 신당3동 347-87, 3/8
강남 ③구역	조내화	강남구 서초동 507, 3/6

● 4지구

회 현 구 역	조영수	중구 남창동 46-13
시 흥 구 역	김영숙	영등포구 옥산2동 188-3, 여성회관YWCA
인현 ①구역	이우범	중구 남대문로2가 12번지 1호
염 리 구 역	이금순	마포구 대흥동 18-119 10/3
신 촌 구 역	김성미	마포구 아현2동 596-170 1/3
인현 ①구역	김성이	중구 초동 53-1 12/1
염 리 구 역	김태금	마포구 대흥동 3-49 13/6
사 당 구 역	손석구	동작구 흑석2동 산92-229, 12/5
신림 ①구역	김수철	관악구 신림동 1519, 14/2
이 촌 구 역	박윤희	용산구 서부이촌동 증산APT, 6동 605호
필동 ②구역	이한영	중구 필동3가 1-1 6/1
마 포 구 역	임경식	마포구 풍덕동 116-37
봉천 ①구역	신정철	관악구 봉천8동 174-130 30/3
필동 ④구역	박순애	중구 필동2가 16-1
상도 ①구역	김은숙	동작구 상도2동 201-121 15/2

● 5지구

남가좌구역	김재용	서대문구 남가좌동 258-32 2/4
화 원 구 역	권문자	중구 충무로4가 50-5
초동 ①구역	김정현	중구 을지로3가 259-4
을지 ②구역	강미애	중구 주교동 147-2

*** 축하합니다 (8월중 결혼)**

- 김혜민양(김인곤 박승호집사 딸) 5일오후 2시 YWCA에서
- 신경림양(신현상장로 심숙권사 2녀) 18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나희석군과 김성숙양(김재창 목사2녀) 3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옥인돈군(서석임집사 아들)과 강혜경양, 5일오후 3시 영빈관에서
- 조대형군과 박에스더양(상계구역) 6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위로드립니다 (8월중 별세)**

- 이백만씨(이대길 선생 부친) 27일 별세, 29일 장례

□ 권찰수첩 □

**가정 심방에
대한 재인식 (1)**

충현저 7·8월호에 '심방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심방하는 자나 심방을 받는 자의 자세 확립과 성도들은 그 누구나 다 심방하는 자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을 심방하게 될 때 심방하는 자에게 있어서나 심방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을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심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 뒤에 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방하는 자 가정을 방문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에 세우는 일은 금물입니다. 항상 자신은 하나님 뒤에 서야 합니다. 이 태도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없이 성공적인 심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심방하는 자가 자기의 잘 생긴 인품이나 앞세우고 말 잘하는 자기나 앞세우고 또한 자기 경험이나 내세우게 될 때 무슨 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런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뚝뚝한 말씀 한마디와 비교가 되며 예수님의 삼 년 경험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방하는 자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추호라도 말재간 있고 인품 잘났고 경험많고 하는 따위의 심방자가 가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는 냄새나는 저질의 인간밖

에 나타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귀한 「주님의 사자인데」하는 권위의식 속에 도사린 인간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가려주시고 주님이 찾아 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알서 주십시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심방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이 왔다는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심방을 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정에 찾아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써서 말씀을 줍니다.

또 그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무능한 자가 능한 사람으로, 허약한 자가 새힘의 사람으로, 시험 중에 있는 자가 시험에서 놓여나며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시험에서 놓여나며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역사를 이룩합니다. 심방 온 사자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할 때 그 신앙심에는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은 곧 현실이니 그래서 확신한 그대로 기적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지장을 주지 않아 더욱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 수화기를 내려 놓습니다. 떠드는 아이들을 달랠니다. 찾아온 손님을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한국 기독교 대책협의회 조직

한국 기독교의 각 교단은 교회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기독교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19개 기성 교단의 공식대표로 구성된 동 대책협의회는 “신학교의 난립문제” “사이비 기독교 범람문제” “재산분규 문제” “교직자의 비윤리문제” “타종문제”를 범 교단적으로 협의 순화하여 한국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구성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단=지원상, 김지길, 김형태, 서기 신진목, 회계 김석태.

△ 운영위원=한석지, 지원상, 김지길, 김형태, 장신정, 이봉성, 신진목, 민영환, 김석태, 김용도

선교센터 「바울의 집」 기공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 (원장=조종진)은 8월27일 경기도 화성군 팔달면 월문리 현장에서 「바울의 집」 기공식을 거행했다.

대지 1만여평 위에 건설될 바울의 집의 총 건축규모는 1천5백평에 달하며, 공사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 그중 3억원을 투입할 제1차 공사는 이미 3천만원 이상을 들여 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와 부대공사가 금년 연말까지 마치게 된다.

세계선교의 패턴을 기초로 현대선교를 개발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 「바울의 집」은 1973년 8월에 모였던 아세아 선교 협의회 창립회의에서 14개국 선교 단체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서울에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을 설립키로 결의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순화교육생과 사랑의 결연

한국기독교실업인회(회장=최태섭)는 사회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한 이들중 무의 무탁한 291명과 사랑의 자매결연을 맺고 이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291명의 결연자와 기독교실업인, 관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사랑의 결연 감사예배」가 있었고,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뒤 모두들 기독교실업인 관련 기업체에 취업했다.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26회 총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는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 대전 중앙교회당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서재구장로(중부산노회 소속)를 선출했다.

전국 33개노회 1백7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날 총회는 전회기의 사업및 결산보고를 받고 임기 만료된 임원진을 개편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서재구, 부회장 이근신, 이성수, 박종덕, 유기명, 김상석, 서기 정덕규, 부서기 김주락, 회록서기 신영택, 부회록서기 박상달, 회계 김수태 부회계 김정웅, 총무 문성목.

한국 기독교 백년 대성회 준비위 조직

한국 개신교 1백년 대성회 준비 조찬기도회가 지난 9월 1일 오전 7시30분 세종호텔에서 열려 신원균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서 선임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의와 한국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에서 공동 발기된 기독교 1백년 대성회를 위한 준비 조찬기도회에는 2백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 동 대회의 취지와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선임된 준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팔호 안은 교단명)

신원균(예장통합), 피종진(예장합동), 한상면(기장), 신웅균(호헌), 최복규(예장대신), 이만신(기성), 김홍도(기감), 오관석(침례), 양광석(예성), 김진환(하나님의 성회), 김두환(하나님의 교회)

신교(新敎)백주년 준비건의

각 장로교단의 중진 인사들이 9월 6일 모임을 갖고 9월 소속 장로교단 총회에서 한국 신교(개신교) 1백주년 준비를 위한 위원을 선출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성철(합동), 강진명·김종대(통합), 박재봉·오진(기장), 민영환(고신)목사와 미국 남장로회 신교교부 모요한, 캐나다 선교부 오이수 선교사 등 8인이 모인 동 회합에서 한 뿌리를 가진 교단들단들이 오는 1984년 장로교 설립 1백주년을 기념할 위원 5인을 선출하여 달라고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의 건의가 각 장로교단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장로교단을 중심으로한 개신교 1백주년 행사가 있게 될 것이다.

10월 9~12일 추기성례식

나를 기념하라

추기 성례식이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성례식으로 가을 성례식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학습·세례문답식: 10월 9일 (목) 오전 10시~오후 9시
- 10월 10일 (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세례식: 10월 10일 (금) 오후 7시 30분
- 성찬식: 10월 12일 (둘째주일)

성찬예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끝까지 주님의 몸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영구히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상호관계를 맺게하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상에서 이룩하신 일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만찬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만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최후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여 세우신 것이다.

주님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교회는 주시로 세례와 성찬예식을 베푸는데 우리 교회는 해마다 봄과 가을, 일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이성례식(세례식과 성찬예)식을 베푼다. 그러므로 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며, 새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설교는 협동목사가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해외여행으로 2개월의 공백기간 중 당회장 업무의 대리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다.

- 당 회 - 윤형철목사
- 제직회 - 김원남목사
- 성례식(성찬·세례) - 김원남목사
- 설 교 - 주일 낮(협동목사)
- 주일저녁(부목사)
- 수요일저녁(김희보목사)

추계 대심방 실시

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추계대심방을 실시했다. 11월 말까지 계속 될 본 심방은 금년 봄에 절반을 마치고 나머지 절반을 이번 가을에 하게 된다.

대심방은 일주일 중 화·수·목요일에 하고 금·토요일은 유교 심방을 주로 한다.



김창인목사 출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선교지 시찰 및 북한선교회 지부 순회집회차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45분 비행기로 출국하셨다.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북한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조성을 하게 될 계획이다.

금번의 순회지역은 캐나다, 미국 전역과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등이며 귀국길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10월 24일부터 열리는 세계선교대회에 참가한다.

김창인목사는 1979년도에도 동지역을 순회하였다. 이번 여행에는 북한선교회 총무이사인 백인빈장로가 동행하였다.

전도위원장에

김중석목사 임명

당회는 그동안 당회장실장 윤형철목사가 겸직하여 온 전도위원장에 김중석목사를 임명했다. 김중석목사는 그동안 미국에서 1년간 수학하고 지난 7월에 귀국하였다.

교회27주년기념

음악 예배 드려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은 지난 9월 7일 저녁 예배는 음악 예배로 드렸다.

제1성가대가 준비한 모팔트의 미사곡(Missa Brevis in C)을 연

주했다. 본당과 별관을 꼭 메운 가운데 오늘날까지 지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고등부 선교음악회도

한편 주일학교 고등부는 제5회

선교음악회를 지난 9월 5일(토)에 드려 선교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했다.

지휘에 이한승, 반주에 김경선 선생이 수고하셨다.



보다 절약을

후반기 예산절약 시행토록

교회는 1980년도 교회 경상비의 수지 균형을 맞추고, 새성전 건축을 위해 온 교회가 비상한 각오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절약을 하도록 결정했다.

당회에서 결정된 예산 절감의 원칙은 계획된 사업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여 실시하고 건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식대, 회의비, 사무비, 환경미화비, 친교 및 야외예배, 연말시상, 외부 강사 초청, 회지 발간등의 지출항목은 가능한한 억제키로 결정 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도 적용이 된다.

제5회 성가합창제

연합성가대 출연

매년 가을에 극동방송국이 주최하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회 성가합창제에 본 교회 연합성가대가 출연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일(토)에 열릴 본 성가합창제는 우리 교회 제1, 2, 3 성가대원이 연합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지휘는 제2성가대의 정국진집사가, 반주는 조희영선생이 맡게 된다. 금년의 제5회 성가합창제에는 우리 교회외에 영광, 순복음, 초동, 수원침례, 동신, 정동, 상도성결교회가 참가하게 된다.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성가부)

가. 임명

제일성가대 남명우(앨토)

나. 퇴임

제일성가대 임정화(앨토)

2. 교육위원회(주일학교)

가. 임명

어새부	정수자(여)	정교사
어새부	홍인성(여)	임시교사
유치부	양성실(여)	임시교사
중등부	김성옥(남)	정교사
고등부	정명희(여)	임시교사
고등부	유척규(남)	임시교사
장새부	박명엽(여)	임시교사
선교부	김명숙(여)	임시교사

토막소식

*.....교회는 지난 9월 7일, 교회설립27주년을 맞아 20년근속자에게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금년에 표창자는 송준일·임광식·이태규장로와 이선일권사의 4명이다.

*.....교회는 오는 10월 노회에 서 본 교회 검석원·유재일·남성호장로사에 대한 목사 안수와 김영희·조준상·최봉호·박동실전도사의 장도사 인허를 청원하기로 했다.

*.....교회는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사용하던 미니 버스를 심방위원회에서 사용, 심방에 이용키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21일 저녁 주교 15부교사 헌신예배로

드렸다. 강사엔 종신대학 서리인 정성구목사.

*.....성경학원 중등반은 사회과목을 담당한 유재일강도사, 수학에 박창균선생이 사임하고 양한주(사회), 이미애(수학) 선생이 새로 오셨다.

*.....십방위원회는 고등부 면려회의실로 이전, 고등부 면려회는 십방위원회실로 이전했다.

*.....산업전도회는 9월 1일 유년부실에서 중현교회내의 산업전도인이 모여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를 가졌고 8월 동안 10개 업체에서 290여명이 모여 직장예배를 드렸다.

*.....제 2 여전도회는 부현교회에 자전차 1대, 강원 송계리교회에 앰프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었다.

*.....어린이새신자부는 오는 10월 5일 총무처에서 등반생조사를 실시, 또한 이승근목사를 모시고 교사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아부는 10월 5일에 3학기 성경공부복습을, 10월 23일에는 십계명외우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부는 10월 12일 서울대 교정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20일에는 "학령전 아동의 정서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자전도사의 교사 특강을, 26일에는 학부모초청좌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년부는 10월 5일 3학기 성경시험을, 26일은 학급재평성, 30일에는 학생심방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초등부는 10월 8일, 새성전건축현장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12일에는 학생심방 결과보고회를, 26일에는 공관복음증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중등부는 10월 3일 지난봄에 계획했던 교사전교회를 대한수도원에서 가질 계획이고, 12일

에는 교회근처로 노방전도를 나갈 계획이다.

*.....고등부는 10월 5일 제 3학기 성경시험을 치루고, 10월 24일에는 교사기도회를, 26일에는 연구수업을 가질 계획이다.

*.....대학부는 10월 23, 24일 중현기도원에서 반장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청년부는 10월 13, 14일에 임원·반장·스텔훈련을 본 교회당에서 가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1~5일까지 C. C. C. 이상구간사를강사로 모시고 전도세미나를 가져 성향을 이문가운데 은혜스럽게 마쳤다.

*.....장년새신자부는 10월 19일 십계명외우기대회를 가질 예정이

다.

*.....장년부는 10월 7일 교사기도회 및 교사특강을 김희보목사를 모시고 가지며 10월 12일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10월 25일 조인제집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에서 본 이성관」이란 주제로 학생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선교부는 새성전 건축현장에서 오는 10월 17일 학생, 교사 철야기도회를 갖고 19일에는 이종윤목사를 모시고 「중공선교 여행보고 및 전략」에 관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새가정부는 10월 26일 초청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각 종 통 계

1980. 8. 1. (매월 정주 기준)

구분		남	여	적					
예배	주일낮	I부	225	416	641	총세대수 3,748			
		II부	497	1,066	1,563				
		III부	458	806	1,264				
		IV부	199	411	610				
		계	1,379	2,699	4,078				
주일저녁	359	695	1,054	신앙	교인	남	3,248		
	168	388	556			여	4,990		
주일	어린이새신자부	37	38	75	급	총수	계	8,274	
		영아부	165	117			282	남	1,810
	유치부	153	199	352	행	세례입교	여	3,340	
	유년부	221	197	418			계	5,150	
	초등부	204	201	405	교인	유아세례	남	502	
	중등부	161	161	322			여	338	
	고등부	147	135	282	현	학습교인	계	840	
	대학부	69	89	158			남	259	
	학	청년새신자부	64	132	196	장	교인	여	405
			장년부	33	311			344	계
교	노년부	37	117	154	원입	교인	남	713	
		산업교육부	12	93			105	여	907
	선교부	43	66	109	계	1,620			
	새가정부	16	20	36					
	합계	3,337	5,768	9,105					

10월의 행사

- 10월 1일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5일 정기 제직회 · 산업전도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 중공방문
 보고대회(이종운목사)
 9-10일 학습 · 세례문답
 10일 세례식(오후 7시30분)
 10일 교회 전체 철야기도회
 12일 성찬예식(1·2·3·4부 예배시), 남전도회 · 권사회 월
 례회, 산업전도회 헌신예배
 14-15일 수도노회
 19일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
 회
 26일 구역권찰회 · 교육위원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청년부 헌
 신예배
 27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28일 정기 당회

편집하고 나서

*.....어느덧 가을, 금년도 3개월이 남았다. 10월 3일 우리와 닮고 정들었던 김재창목사님이 더 큰 사명을 띄고 파라과이로 향하시게 된다. 남미에서도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어 매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드리자.
 *.....지난호에 이어 칼빈의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위하여」가 나간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의 말을 듣고 보니 중대한 마음이 더욱 채찍질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속에서 이번 호도 연재한다. 지면상 다 실지 못함이 끝내 유감이다. 이 글은 다음호로써 마쳐지게 된다.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글을 잘 묵상하며 섭취하여 향내나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노력하자.

*.....가을 성례식이 곧 시작된다.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성례식을 맞게 되기를 바라며 떠나가시는 김재창목사님께 부탁을 드려 세례와 성찬에 대한 글을 실는다.

경건하고 참된 마음으로 성례식에 참여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2년이상 연재되었던 기독교윤리가 이번호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된다. 계속하여 좋은 글을 써 주신 김하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기회가 나는 대로 더 좋은 글로 독자들에게 공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부쩍 늘어났다. 그만큼 월간총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모든 충고를 다 받아 들이지 못하는 편집자의 고충이 있음을 밝힌다. 계속 관심과 편달이 있기를.....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10월호

제8권 제9호

통권 제81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주 간/윤형철

편집인/조현명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장로회
 260-3407 · 3408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궁극적인 구원이란 ?

부름받는 자는 떨어지지 않아

질문 /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란 무슨 뜻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

우리 칼빈주의 개혁파 교회에서 신봉하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로마교나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들로 부터 도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도의 견인(궁극적 구원)교리란 하나님이 중생시키고 은혜의 상태에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상태로 부터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결국엔 영원히 구원얻을 것이 확실하다 함이다.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확신을 지원하여 그들을 위안하고 용기와 담력을 준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마귀의 시험이나 신자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 이 견인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확신함이 성도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1. 궁극적 구원에 대한 증거

1)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에 근거함.

견인은 신앙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견인은 신앙을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확고성과 신실성에 의뢰한다. 이 항구적인 은혜 때문에 신앙이 계속 유지하여 견인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이 사람의 그 무엇에 의뢰하지 않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변할 것을 믿는다.

2)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과 무한한 능력에 근거함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

라”(25 : 34)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며 그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3)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에 근거함.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 : 28, 29에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4) 성령의 첫 열매와 보증에 근거함.

성경에서 이 계속의 보증은 신앙과 신적 구원의 상호관계로 짜여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고후 1 : 20) 구원의 복음에 향한 신앙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믿어야 한다.(엡 1 : 13)

2.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예배의식, 기도, 말씀(설교), 성례,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등은 우리 성도로 궁극적 구원을 보호하시는 방편이 된다.

견인 구원에 대한 이의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의지를 신뢰하게 만든다.

견인 구원에 대한 이의는 현대적 감각에는 맞아 보일지 모르나 신자의 소망을 미정(未定)에 붙여 그로 하여금 신앙의 복된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성, 불변성, 신실성, 확고성을 확신하며 미래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기쁨과 감사를 소유한 자들임을 믿고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장 정 일목사 (노년부지도)

실로암
못가에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23 - 26절〉